

22대 국회 개원...野 '특검법 재발의'·與 '결속 다지기'

민주 '채상병특검법' 등 입법 시동...국힘 워크숍 열고 '단일대오' 정비 원구성 협상 교착 상태 ... 민주 "6월 7일까지 협의 안되면 표결로 결정"

22대 국회도 여야의 싸움으로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개원 첫날인 30일 의원총회를 열어 '채상병특검법'과 '전 국민 1인당 25만원 지원' 내용을 담은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당론으로 채택·발의했다. 재발의하는 특검법은 특검 추천 권한을 조국혁신당 등 비교섭단체까지 확대하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호준대사 임명과 출국금지 해제까지 수사 범위를 확대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도 다시 추진할 방침이다. 또 민주유공자예우법, '방송3법',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가맹사업법 등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나 여야 합의 불발로 폐기된 법안들도 재발의한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대통령이 '몰지마 거부권'을 남발한 법안들을 반드시 다시 관철하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거대 야당이 '입법 독주'에 시동을 걸면서, 여당의 반발 및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정면 충돌하는 구도가 재현될 조짐이다.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도 야당이 밀어붙이는 각종 특검법과 정책 법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거부권 활용을 통해 정면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국민의힘은 이날부터 이틀간 충남 천안에서 워크숍을 열고 108명 의원의 '단일대오' 준비에 나섰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재표결에서 '이탈표'를 최소화해야 하는 만큼 내부 결속을 다지는 자리다.

국민의힘은 21대 국회에서 여야 정쟁에 묻혀 폐기된 각종 비정당 민생 법안을 신속히 재발의해 처리하기로 했다.

원자력발전소 가동으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

의 영구 처분 시설을 마련하기 위한 고준위방폐물법, 반도체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늘리는 내용의 'K칩스법' 등이 대표적이다.

22대 국회가 이날 개원했지만 총 18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배분하는 원(院) 구성 협상은 교착 상태다.

여야 원내지도부가 물밑 접촉을 이어가고 있지만, 법제사법위-윤영위 위원장 배분 문제가 풀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다음달 7일까지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본회의 표결을 통해 원 구성을 마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여야의 민생·정책 주도권 다툼도 가열되는 모습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1대 국회 막바지에 연금 개혁 드라이브를 건 데 이어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여당 비판을 수용해 일부 수정할 수 있다고 제안하며 정책 승부수를 연이어 띄우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 일각에서는 1기주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폐지를 비롯해 야권에서 금기어로 여겨지던 중부세 개편 이슈도 꺼내고 있다.

정부-여당도 이같은 야당 제안을 계기로 22대 첫 정기국회에서 중부세를 비롯한 부동산 세제를 전면 개편할 것을 야당에 공식 제안했다. 또 정기국회 처리를 목표로 상속세 개편,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재검토 등 정책 이슈를 꺼내고 있다. 반면 이 대표가 꺼낸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서는 "포퓰리즘"이라며 어떤 형태든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21대 국회 막판 타결이 무산된 연금개혁은 22대 국회에서도 여야의 최우선 과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30일 오후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조선의원들로 구성된 원내부대표단을 소개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 '대선출마 당대표 사퇴' 예외 규정 추진... '李 연임용' 해석

대선 1년전 사퇴·시기 조정 가능 '대통령 궐위 대비'尹탄핵 염두?

더불어민주당이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 대표의 사퇴 시기를 조절할 수 있도록 당헌 개정을 추진한다.

사실상 차기 대권주자인 이재명 대표의 연임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 당헌·당규 개정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장경태 최고위원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보고했다.

현행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 대표나 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할 경우 대선 1년 전 사퇴해야 한다.

TF가 보고한 개정안은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당무위원회 의결로 당 대표의 사퇴 시점을 정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뒀다.

장 최고위원은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의 당헌·당규를 차용했다"고 설명했다.

당 대표의 사퇴 시점에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한

이유로 민주당은 의원들에게 배포한 자료에서 '대통령 궐위 등 비상 상황 발생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해야 한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8월 임기를 마치는 이 대표가 연임해 차기 대선에 도전하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나 임기 단축 등으로 예정된 대선 시기(2027년 3월)보다 앞당겨져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을 민주당이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장 최고위원은 기자들에게 "대통령 탄핵 등 별도의 상황은 상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자료에는 당 대표의 사퇴 시한과 전국 단위 선거 일정치 맞물리면 헌선이 불가피해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개정안이 이 대표의 연임용이라는 시각이 제기되는 이유는 이 대표의 임기가 차기 지방선거 공천 및 대선 출마와 맞물려 있어서다.

이 대표가 2년 임기의 당 대표에 연임한다고 가정할 경우, 그가 2027년 3월 대선에 출마하려면 2026년 3월에 사퇴해야 한다. 그러면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 공천권을 행사할 수 없고, 당 대표가

없는 상태에서 선거를 치러야 할 수도 있다.

당헌이 개정되면 이 대표가 연임하더라도 지방선거 후보자를 공천하고 선거까지 치른 뒤 사퇴해 대선을 준비하는 시나리오가 가능해진다.

이 때문에 당 일각에서는 당헌까지 바꿔 이 대표와 진명(진이재명)계의 당 장악력을 공고히 하려는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당헌 개정안과 함께 마련된 당규 개정안에는 총선 공천관리위원회가 후보 부적격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 중 하나인 '당의 결정 및 당론을 위반한 자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장 최고위원은 "단순하게 당론을 위반하는 게 아니라 당론 위반에 따른 징계 경역자' 등 구체적인 표현으로 기준을 엄격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SINCE 1952

NBS 조사,尹 국정 지지율 긍정 29%·부정 62%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연임과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더 높다는 조사 결과가 30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7~2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의 연임에 대해 '적절하다'는 응답은 39%, '부적절하다'는 49%로 각각 집계됐다. 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는 '적절하다'는 응답이 각각 77%, 69%로 나타났고 국민의힘 지지층은 83%가 '부적절하다'고 응답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전대 출마에 대해 '적절하다'는 응답은 37%, '부적절하다'는 47%였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적절하다'는 의견이 70%였던 반면, 민주당 지지층과 조국혁신

당 지지층에서는 '부적절하다'가 각각 70%, 72%를 기록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는 29%로 2주 전 조사보다 1%포인트(p) 올랐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주 전보다 2%포인트 내린 62%였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0%, 더불어민주당 27%, 조국혁신당 12%, 개혁신당 3%, 정의당 1%, 새로운미래 1%, '지지 정당 없음·모름·무응답' 24%였다. 2주 전과 비교해 국민의힘은 1%포인트 떨어졌고 민주당은 변동이 없었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이뤄졌고, 응답률은 16.3%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240320-중-166683호] [광고]

무릎 통증이 심할때는
첨단우리병원

무릎 관절

인공관절 수술
관절경 수술
- 전,후방 십자인대 수술
- 연골판 수술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970-6000
첨단과학기술원 / 호수공원 앞

BYUN.G.U

SALE 5.22 ~ 6.8
70%~50%

변지유 창립 45주년 맞이 감사세일

이월 상품 70~50% 세일 | 신상품 30% (망블라우스 제외)

많은 관심 참여 부탁드립니다. ☎ 062-222-7205 / 010-9287-7205